

그 시절에 사는 마음

박 혜 심

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.

해마다 그러하겠지만 추억과 희망이 엇갈린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는 나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할 길이 없다.

더우기 내가 것처럼 소원하고 희망하던 주체과학의 최고전당 **김일성**종합대학에서 보낸 한해는 나의 일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뜻깊은 추억으로 될 것이다.

기쁨과 행복에 취하여 꿈만같이 보낸 하루하루를 일기장에서 되새겨보는데 동생이 나를 불렀다.

《누나, 좀 봐. 멋있니?》

추억의 호수에 돌을 던진 동생에게 아쉬움의 눈길을 드는데 붉은벡타이를 매고 소년단경례를 한 뜻밖의 모습이 보여오지 않는가.

《애, 너 또 누나장을 뒤졌니?》

동생은 하루에도 몇번씩 내 장속에 고이 간직한 소년단벡타이를 펼쳐보곤 한다.

그 벡타이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나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벡타이었다.

《누나,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아홉살이야. 소년단원이 된단 말이야.》

나는 동생이 소년단원이 되면 그 벡타이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.

나와 약속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으니 동생은 참지 못하고 오늘은 그 벡타이를 매고 나섰던 것이다.

그 벡타이를 보는 나의 마음은 뜻깊은 영광의 그 자리에로 날아갔다.

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장에 몸소 나오시여 전국의 소년단대표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한가슴에 짝 차넘치었다.

앞날의 조선은 조선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학교길을 걸을 때에도 깊은 밤에도 내 가슴속에서 떠나줄 몰랐다.

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셨던 영광의 그날은 나에게

지칠줄 모르는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었다.

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내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공부하였기에 나는 학교전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꿈에도 소원하고 바라던 최대의 희망 **김일성**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.

잊지 못할 소년단시절은 지나고 청년동맹원이 되어 붉은벡타이는 벗어도 내 가슴에는 언제나 그날의 벡타이가 휘날리고있다.

우리 수령님들처럼 우리 원수님께서도 매시였던 붉은벡타이, 항일아동단에서 물려받은 붉은벡타이,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의 한 부분인 붉은벡타이.

그렇다. **김일성**종합대학 대학생이 되었어도 나는 붉은벡타이 소년단시절처럼 과학탐구의 길에 청춘의 심장을 아낌없이 바쳐가리라.

어찌 대학시절뿐이라. 대학을 졸업하고 당이 부르는 그 어느 초소에 가든 한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내 언제나 그날의 그 시절을 가슴에 안고살리라.

내 마음속 맹세와도 같은 붉은벡타이를 오늘은 동생이 매고 내앞에 나타냈다.

《애, 벡타이를 땀다고 다 소년단원이 되는게 아니야. 붉은벡타이에 담긴 깊은 뜻부터 먼저 알아야 해!》

《나도 알아, 당원의 영예도, 영예의 금메달도 다 붉은벡타이에서 시작된다는걸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누난 나에게 몇번이나 말해주었니?》

그래, 말해주었다. 나뿐만아니라 내 동생도 자라나는 후대들도 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영광의 대오에 함께 서자고.

새해와 더불어 동생은 조선소년단원이 된다.

나 또한 새해에 탐구와 지식의 더 높은 계단에 오를것이다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더욱더 환희롭고 아름답다와질 우리의 새해여!

기쁨과 희망으로 불러찾으며 새해에 더 높이, 더 빨리 비약할 나의 조선이어!